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1호 [루게 제23203호] 주체99(2010)년 9월 8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 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돌아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체 인민군장 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열렬한 조국애를 안고 사회주의조국방선을 철옹성같이 지켜 가고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과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는 혼성창작 《경례를 받으시라》, 녀성독창 《어머니당이여》, 녀성5중창 《당은 장군님의 품》, 대화시 《한집안식솔》, 제담 《근기는 혁명군대의 생명》, 중창이야기 《우리 마을 우리 초소》, 선동시극

《훈련을 싸움보다 더 힘들게》, 손풍금과 노래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시이야기 《그날의 친위병들처럼 살자》, 선동과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내재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령도의 사랑의 품속에서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영원히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인민군 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대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반영한 특색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혁명군대의 예술인답게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으로 군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 밀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은 군인 교양의 위력한 수단인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예술선전대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군부대의 전체 예술선전대원들은 수천리 외국방문의 길에서 겹쌓인 피로도 후실사이없이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여주시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크마음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과감히 벌려 전투력강화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지정보도반

선군조선의 기상떨치며 미래를 향하여 앞이 밝

년간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공화국창건 62돐을 맞으며 나라의 위력한 대상설비 생산기지인 통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사람들은 기쁘게 하는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9월 7일 현재 연합기업소에서는 연간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물이 기록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새로 조립한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작장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평평 생산함으로써 연간계획을 석달 이상이나 앞당겨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통성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시말씀과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즐기한 투쟁을 벌려 흥남가스화대상설비와 각종 압축기, 탄광과 광산, 발전소대상설비들을 생산하는족족 현지로 떠나보내었다. 당대표자와 당장

통성기계연합기업소 65돐을 앞두고 통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를 현대적인 기계설비생산기지로 꾸려주시려고 불면분류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통성로동계급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통성의 로동계급은 지난 시기 간고한 시련속에서 대형기계설비를 만들던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합니다.》

지난 8월 초 선군혁명령도로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통성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선군주철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연간계획을 당대표자

회전으로 끝내겠다는 이곳 일군들의 결의를 들으시고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통성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당대표자회전으로 연간계획을 끝내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한 단위의 맡고나가 전투조직과 지휘를 메기있게 짜고 들고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갔다. 방충선전차활동과 기동예술포대활동이 강화되고 구내와 일터마다에 혁신의 새 소식을 알리는 속보판들이 려이 나붙어 기업소의 분위기는 날로 고조되였다.

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흥남가스화1계열대상설비들과 압축기본체를 비롯한 각종 주물용생선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선군압축기작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공정법, 기대별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치열한 돌격전을 벌려 각종 압축기생선기계를 원천 넘쳐 수행하였다. 1. 기계제작과 4. 기계제작, 프레스작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8m타당반과 2.0m대형선반, 7.0m대형 문형형식반과 3.00t 프레스를 원만히 가동시켜 흥남가스화대상설비와 탄광과 광산, 발전소들에서 요구하는 대형설비들을 성과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단조작장과 1, 2. 세판작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합리적인 지주, 장비들을 창안도입하여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해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특약기자 박동석

대교조절투쟁의 새 소식 물길굴확장공사 기본적으로 완공

희천발전소건설 미루별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 희천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미루별물길공사중앙지휘부의 일군들과 각 려단 돌격대원들이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쳐갈 일년안고 질풍같이 내달려 가는 기본물길공사를 판공하고 개착공사물길공사를 원천 넘쳐 수행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조선의 기상을 다시 한번 만방에 높이 떨칠것입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공사장에 달려온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많은 대상공사를 기한전에 끝내 큰 목표를 세우고 드세 투쟁을 벌리였다. 지휘부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정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쳐나갔다.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합리적인 발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팀제전을 벌려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려단에서는 지휘부적으로 많은 대상공사를 제일 먼저 끝내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작업량이 방대하고 조건이 불리하였지만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공사에 진입한 지 불과 7개월만에 작업량을 초과하여 100% 이상을 달성하였다. 평안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길굴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개의 창조물로 완성할 예극의 마음을 안고 공병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콘크리트치기와 다짐을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평양시, 강원도, 광강도,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길굴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개의 창조물로 완성할 예극의 마음을 안고 공병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콘크리트치기와 다짐을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고려약생산에서 혁신

각지 고려약공장들에서 200%로 수행하였다. 하여 이들은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율해계율을 8월 초에 완수하는 빛나는 위훈을 떨치였다. 강계고려약가공공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7월에 높이 평가해주신 삼지구엽초강장약, 익모초부인교감약약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좋은 약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다. 지난 시기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면서도 새 제품들을 개발도입하여 전국의 본보기 단위로서의 영예를 떨치는 평형고려약공장에서는 올해에도 면역계통에 좋은 삼바리활성가루를 비롯하여 9가지의 새 제품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도 평안북도 안주, 윤진, 염주, 황해남도 신천, 태란, 황해북도 상원, 강원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조국을 휘황한 미래에로 이끌며 더욱 찬란히 빛나리 본사기자 김중훈 특약

